

美國 HDD 業界의 現況과 展望

미국의 HDD(Hard Disk Drive)업계는 企業倒産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각 메이커는 財務面에서의 持久力, 폭 넓은 製品 라인, Customer Base를 가지므로서 어려운 사업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업계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이 IBM이다. 동사의 생산 내지 購入 결정은 미국시장에서 존재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는 일본 메이커와 마찬가지로 미국 메이커의 업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부 관측통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後發메이커 가운데서 앞으로 기업 탈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한편 기존 메이커는 80년대에 투자한 현금이 아직 수중에 남아있는 외에 대형 System 메이커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살아 남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업계의 정리·통합에 견디기 위해 Disk Drive 메이커는 폭 넓은 기억용량과 Foot print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하고 시대의 흐름을 탄 제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IBM, ATT, HP, Sperry, Honeywell, DEC와 같은 컴퓨터 메이커의 OEM계약은 매상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대형 Customer 가운데 1, 2社에만 의존하는 것은 만약 계약이 파기된다든지 계약량이 줄어들 경우 피해가 커진다. 더우기 전문가에 의하면 HDD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뢰와 약속을 지켜야 하고 최정상의 경영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로다임社の G. 레어副社長은 「과거 1년간에 걸쳐 탈락 기업들이 잇달았는데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도 탈락중에 있는 메이커가 일부 있다. 현재의 업체(약40社)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업전수가 모자란다」고 말한다.

작년에는 에페로社, DMA Systems社, International Memories社(IMI) 등이 잇달아 시장으로부터 탈락했다. Applied Information Memories社와 Atashi社가 聯邦破産法 제 11조의 적용을 받아 양사의 장래가 위태롭다.

이에 더하여 Computer Memories社(CMI) Seagate Technology社, Tondon社, Mini Strive社, 제백社, Amkodine社, Prium社가 작년에 일시 해고를 했다.

IMI, CMI, Mini Strive 등 3個社は IBM의 Disk Drive 수요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

Kenbrian Consultant社의 W. 설리반씨는 Disk Drive업계에서 실패하고 있는 몇가지 이유를 지적하고 있다. 「메이커는 Customer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Customer Need에 부응할 수가 없든지 기일내에 출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양산체제가 미비하여 그 결과 출하가 지연되는 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제품Cost를 내릴 수가 없는 메이커도 있다.

더우기 極東으로부터의 경쟁이 미국 메이커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미국메이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제품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회사인 Disk Trend社의 산업 분석가인 짐 포터씨는 「Hard Disk Drive 시장은 제품 생명이 짧다」라고 지적한다.

Low-end시장은 Full-height型인 5,25인치 Disk Drive로부터 Half-height 製品으로 이행하고 있

다. 포터씨에 의하면 30MB이하의 용량을 가진 Full-height型 Disk Drive의 출하는 재작년인 84년에 피크에 달했다. 한편 Half-height型 Disk Drive는 30MB이하의 Disk Drive가 작년 전세계의 50%나 되는 157만8,000대를 출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Half-height型의 출하는 87년에 피크에 달하여 283만2,000대가 출하될 전망이다. 그러나 3.5인치 Hard Disk가 서서히 세력을 떨쳐 80년대말에는 시장을 지배, Half-height를 대신할 것이라고 포터씨는 예상하고 있다. 88년에는 500만대 이상으로 68%의 시장 쉐어를 차지하는 3.5인치 Hard Disk가 출하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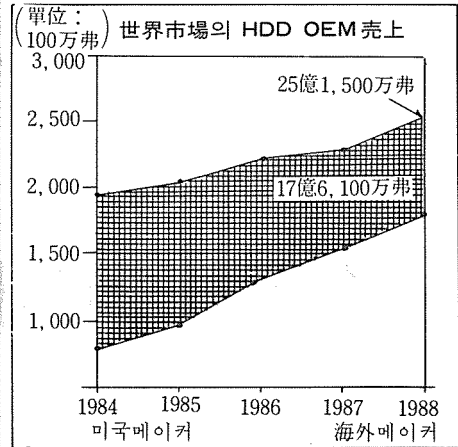
5 MB, 10MB, 20MB의 용량을 가진 Hard Disk는 Low-end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나 IBM이 작년에 30MB 및 40MB의 PC/AT를 판매한 결과, 곧 시장은 30MB Version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LAN(Local Area Network)의 등장으로 Disk Drive메이커가 주력인 OEM 제품라인으로부터 빠져 나가서 파일서버를 발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eagate technology사는 동사의 Disk Drive를 일부 채용한 최대 320MB의 용량을 가진 파일서버를 개발중에 있다.

Full-height 및 Half-height型인 5.25인치 Hard Disk 외에 3.5인치 Hard Disk도 출하하고 있는 로다임사의 G. 레어副社長은 「폭 넓은 제품라인을 가지고 있으면 보다 많은 시장에 참가할 수가 있다. 하나의 시장에만 매달리고 있으면 다른 메이커가 보다 뛰어난 제품을 가지고 나타났을 경우 당장 어려움에 빠진다. 모든 시장이 한꺼번에 나빠지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으며 하나의 시장이 악화해도 다른 시장이 나빠지는 일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HDD메이커는 일본의 Compatiter 특히 富士通, NEC, 日立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프랑스의 Bull사와 스코틀랜드의 로다임사도 세계의 OEM Hard Disk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메이커는 시장에 참가하여 상당한 시장 쉐어를 확보했다. 그러나 모든 메이커가 (사이



[資料 : 1985 Disk Trend Report]

즈, 용량, Access Time에) 같은 제품을 출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메이커는 저가격으로 次世代의 제품을 판매했다」고 Squest Technology사의 G. 라이더 上級 副社長은 말했다. 미국 HDD 메이커의 세계 매상은 계속 확대하고 있으나 非미국메이커의 売上擴大 페이스는 빠르지 않다.

Disk Trend사의 포터씨에 의하면 미국HDD 메이커의 OEM출하액은 84년에 19억5,300만弗 이었으나 88년에는 25억1,500만弗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사이의 증가액은 5억6,200만弗. 이에 대해 非미국메이커(주로 일본 메이커)의 OEM 출하액은 84년에 6억5,880만弗 이었으나 88년에는 17억6,100만弗이 된다고 예상되고 있다. 이사이의 증가액은 11억200만弗이다.

포터씨는 「Hard Disk업계에서 진정한 Compatiter로서 남기 위해서는 미국 메이커는 초창기에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제품의 出荷時間도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경합 메이커가 신제품을 発売한 후에 같은 Hard Disk를 시장에 투입해도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못한다.

Micro Polis사의 C·벳퍼 副社長은 「적정가격으로 적정시기에 적정한 제품을 発売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